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상실, 신체적 건강의 약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의 상실,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같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년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견디기 힘든 삶의 문제들에 직면한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자살률을 보여 왔으며(Kwan,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자살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19.4%에서 2001년 28.7%, 2006년 37.6%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통계청, 2006). 특히,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젊은 인구의 자살 시도 대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200:1인 반면에, 노인의 경우는 4:1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McIntire & Angel, 1981; Stenback, 1980). 이처럼 노인자살은 한 번의 자살 시도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노인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고 자살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자살 시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는 단일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특히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감퇴되고 즐거움이 감소되어 가며 친구들과과의 사별 등으로 인한 고독, 무가치감, 우

울감, 무력감 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자신의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목적의식의 상실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Burbank, 1992; Klinger, 1977; Leslie, 1982; Peterson, 1985). 많은 연구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Ryff & Singer, 1998), 노후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또는 만족스럽게 보내는데 이러한 정신 심리적인 측면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서혜경, 1990). 특히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과거를 후회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 있으며(Wrosch, Schulz, & Heckhausen, 2004),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Park & Folkman, 1997). 삶의 목적과 의미의 상실은 노인들을 자살로 이끌어가는 심리적 상태를 조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노인의 삶의 의미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의미 또는 목적의 상실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몇몇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인지-행동적 접근에 근거한 여러 자살 관련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살 관련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과 달리 자살에 대한 생각을 경감시켜 주는 생명유지적인 신념과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일반인과 임상 집단 모두에서 삶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많을 때 자살 생각을 적게 한다는 결과 또한 확인되었다(Linehan, Goodstein, Nielsen, & Chiles, 1983).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삶의 의미 또는 목적

의 결여가 자살생각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Sudak, Ford, & Rushford, 1984),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elanie와 Ronald(2003)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및 미래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서숙정, 2007; Baum, 1981; Findlay, 1981; Parquart, 2002) 우울과 부적의 관계가 있으며(Crumbaugh & Maholic, 1981), 정신적 건강(Reker, 1997)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 의미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안영미, 2002)에서도 노인의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살생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한 변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노인의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매개 과정을 통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힘으로써 노인의 자살사고의 발생 및 유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인지적 요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행동적 요인인 회피적 대처양식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

회적 접촉의 만족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인 지표보다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김원경, 2001).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적인 삶의 사건에 대한 조절을 촉진하거나 정신건강을 예언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Dunkel-Schetter & Bennett, 1990; House & Kahn, 1985; Turner et al., 1983; Wethington & Kessler, 1986; 허지연, 2007에서 재인용). 의미 부여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는 의미 부여를 통해 커다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불행이란 환경을 행운이라 지각한다고 했다(심미성, 2006; McAdams, Diamond, Aubin, & Mansfield, 1997).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더 높은 낙관성과 긍정적 정서를 보이며(Steger & Frazier, 2006; Weinstein & Cleanthous, 1996; Zica & Chamberlain, 1992; 허지연,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실제로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이용할 수 할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되는 주관적인 경험은 자살생각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Krause(2007)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들은 타인이 미래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노년기에 안정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들은 타인들과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

라는 기대를 한다고 하였다(Krause, 2007). 따라서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지 자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는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된다.

노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나 가정 내에서의 역할 갈등,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인한 좌절감, 신체적 건강의 악화로 인한 절망감 등의 문제들은 노년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스트레스원이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대처행동을 취하게 되며, 대처행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을 돕는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수동적 회피이며(윤현희, 1994),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감정적 대처와 회피적인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남자노인의 경우 이성적 대처와 감정표출을 억제하는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tud, 2004; 김혜영,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대다수의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회피적 대처양식은 자살과 관련된 변인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Endler & Parker, 1994),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동기 가운데 하나도 신체적, 정신적 질병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과 같은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었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또한 자살 가능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임상 및 비임상 표본 집단에서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회피적 대처양식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D'Zurilla, Chang, Nottingham, & Faccini, 1998). 높은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여 대처한다(최명심, 손정락, 2007). 따라서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더 적응적인 대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다.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성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Melanie & Ronald,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하는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자살로 인한 사망이 더 많다고 한다(Canetto & Sakinofsky, 1998). 이러한 성차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DeMan, 1998), 특히 자살의 성차가 큰 집단은 노인 집단이라고 한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노년기 남자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가정으로 자신의 자리나 역할을 옮겨오고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스트레스나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인 도움 요청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여자보다 덜 수용적인 경향이 있으며, 강인함과 감정 표현의 자제를 강요받았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한 사람이 실제 자살 위협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여자의 자살 위협에 비해 남자의 자살 위협에 덜 반응적이며 덜 수용적인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었다(Berman, 1978; White &

Stillion, 1988).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대처기술이나 전략을 덜 발달시키고, 그러한 대처 전략을 덜 사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Botis, Soldaotrs, Lioosi, Kokkevi & Stefanis, 1994). 자살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남자와 여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살 위험에 대한 완충 요인 혹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Maris, Berman, & Silverman, 2000), Kaplan과 Klein(1989)이 여자의 자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듯이, 여자의 경우 자기에 대한 의미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나 책임감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무너졌다고 지각하거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경우 자살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살로 인한 사망, 자살시도, 자살생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회피적 대처양식의 경우 남자의 자살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여자노인의 자살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자살의 강력한 예측지표인 자살생각의 관련변인으로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

고한 이전 연구의 결과들(Maris, Berman, & Silverman, 2000)을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의미, 자살생각,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양식의 관계에서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남자노인 139명(57.9%)과 여자노인 101명(42.1%)이 참가하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1세($SD=7.28$)였다.

평가도구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 측정하기 위해서 Frankl(1963; 1969; 1975)의 이론과 이정지, 신경일, 김남숙, 최순옥(2002)이 개발한 ‘성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를 토대로 하여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지, 정유진(2003)이 개발한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Elderly Meaning in Life Scale: EMIL)’을 사용하였다.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는 노인들이 자기 자신과 삶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이해하는가, 보편적인 가치 실현은 어느 정도인가,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이다.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는 총 37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4개의 요인(요인 1;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

용, 요인 2; 창조적 가치 실현, 요인 3; 경험적 가치 실현, 요인 4;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4개의 요인 내 포함된 8개 하부요인(자기인식 및 수용, 생의 만족, 생의 목적, 가족사랑, 역할인식, 미래에의 열망, 헌신, 사랑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요인 가운데 제 1요인은 자기 인식 10문항 및 미래에의 열망 4문항이 포함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 2요인은 역할인식 2문항, 생의 목적 5문항이 포함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요인은 사랑의 경험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 4요인은 생의 만족 10문항, 가족사랑 3문항, 헌신 2문항이 포함된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의 의미 점수의 범위는 최소 37점에서 최대 14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 37개의 문항 중 10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된다. 생의 의미 수준 점수 103점 이하는 생의 의미 상실 단계로 실존적 공허 상태를 말하며, 생의 의미 수준 점수 104-117점은 생의 의미를 완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생의 의미 추구 단계를 말한다. 생의 의미 점수 118점 이상은 생의 의미 발견수준이 높은 단계로 확실한 생의 의미가 설정된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살생각 척도

노인들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low, Newcomb와 Bentler(1986)가 완성한 자살생각 척도(Suicide Ideation Scale: SIS)를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생각을 연구한 김형수(2002)도 활용한 바 있는 척도로 5가지 문항(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경험,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 자살시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SIS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김형수(2002)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것처럼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전혀 없다'(1점), '한두 번 있다'(2점), '가끔 있다'(3점), '자주 있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경험 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Zimet, G., Dahlem, Zimet, S.와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이용하여 노인들이 수용하는 사회적 지지수준을 측정하였다. MSPSS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문항 4개,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문항 4개, 그리고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묻는 문항 4개를 포함하여 총 12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들은 각각의 출처로부터 사회적 지지 수용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정말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 MSPSS의 12개 항목을 모두 합친 평균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지지의 수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회피적 대처양식 척도

회피적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ahan과 Moos(1987)의 대처전략 질문지를 유성은(1997)이 번안, 수정하여 만든 질문지에서 회피적 대처를 측정하는 9문항만을 뽑아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회피적 대처양식 척도는 4 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 '매

우 그렇다(3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 노인이 회피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2였다.

로 NF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괜찮은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모형과 모형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적합 지수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NFI(Bentler-Bonnet 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남녀노인 모두 자살생각은 삶의 의미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적 대처양식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노인의 삶의 의미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고, 회피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표 1.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삶의 의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양식의 상관계수 및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성별 \ 변인	1	2	3	4	5	6	7	8	9
남자									
1									
2	.55**								
3	-.31**	.48**							
4	-.18*	.04	.16*						
5	-.36**	.38**	.60**	.37**					
6	-.49**	.51**	.44**	.31**	.51**				
7	-.35**	.26**	.31**	.21*	.22**	.21*			
8	-.44**	.45**	.54**	.21*	.57**	.57**	.45**		
9	.42**	-.21*	-.02	-.10	-.37**	-.26**	-.04	-.24**	
여자									
1									
2									
3									
4									
5									
6									
7									
8									
9									

1. 자살생각, 2. 삶의 의미 제1요인, 3. 삶의 의미 제2요인, 4. 삶의 의미 제3요인, 5. 삶의 의미 제4요인
 6. 지각된 가족의 지지, 7. 지각된 친구의 지지, 8. 지각된 중요한 타인의 지지, 9. 회피적 대처양식
 주. 대각선 아래는 남자, 위는 여자, * $p < .05$. ** $p < .01$

것을 나타낸다.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 양식의 매개효과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접근법에 의해 구조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남녀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반영하는 두 가지 매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하나는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완전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의 직접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를 모두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이다. 대안 모형으로는 노인의 삶의 의미,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회피적 대처양식 각각이 자살생각에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비매개 모형을 수립하였다. 즉 세 개의 모형을 통해 삶의 의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회피적 대처양식을 거치지 않고 자살생각으로 가는 것인지, 삶의 의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회피적 대처양식을 매개하는 경로로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으로도 가고 부분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회피적 대처양식을 매개하는 경로로 가는 것인지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한 비매개 모형과 두 가지 매개 모형의 적합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남녀노인 모두 삶의 의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양식 각각이 자살생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비매개 모형과 삶의 의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완전매개 모형은 RMSEA, TLI 및 CFI 지수를 고려하였을 때,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홍세희, 2000). 반면, 남녀노인 모두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이루어진 부분매개 모형은 적합하게

표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모형들의 적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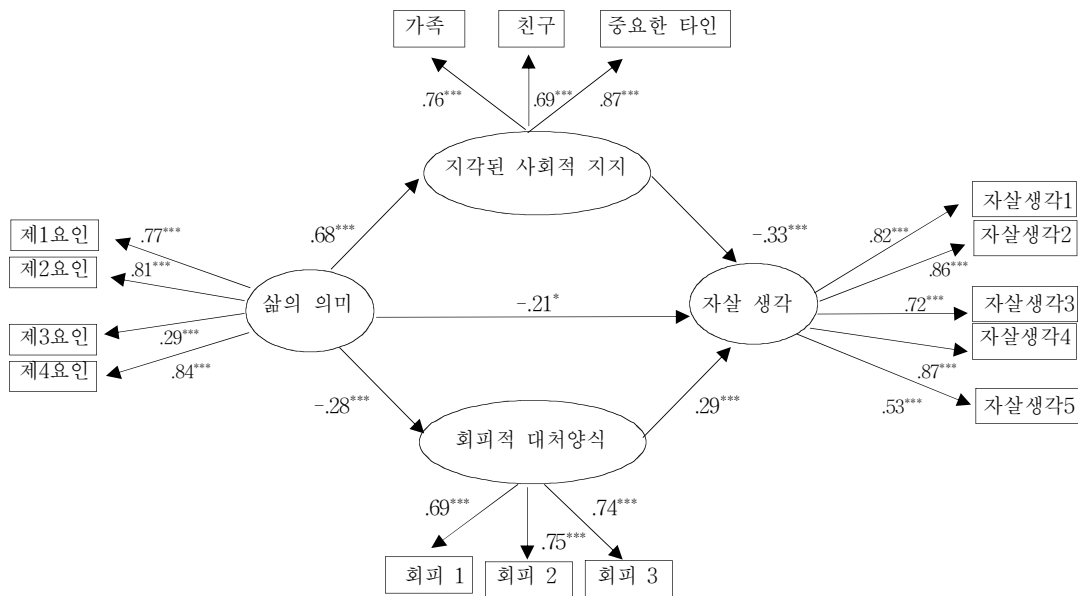
성별	모형	χ^2	df	χ^2/df	NFI	CFI	RMSEA
남자	모형 I-비매개	98.58	3	32.86	.42	.42	.48
	모형 II-완전매개	5.44	2	2.72	.97	.98	.11
	모형 III-부분매개	.36	1	.36	1.00	1.00	.00
여자	모형 IV-비매개	80.88	3	26.96	.41	.40	.51
	모형 V-완전매개	18.68	2	9.34	.86	.87	.29
	모형 VI-부분매개	.00	1	.00	1.00	1.00	.00

나타났다.

남녀노인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한 부분매개 모형을 토대로 삶의 의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 자살생각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최종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 p < .05$.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beta = .68, p < .001$)와 회피적 대처양식($\beta = -.28,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며, 회피적 대처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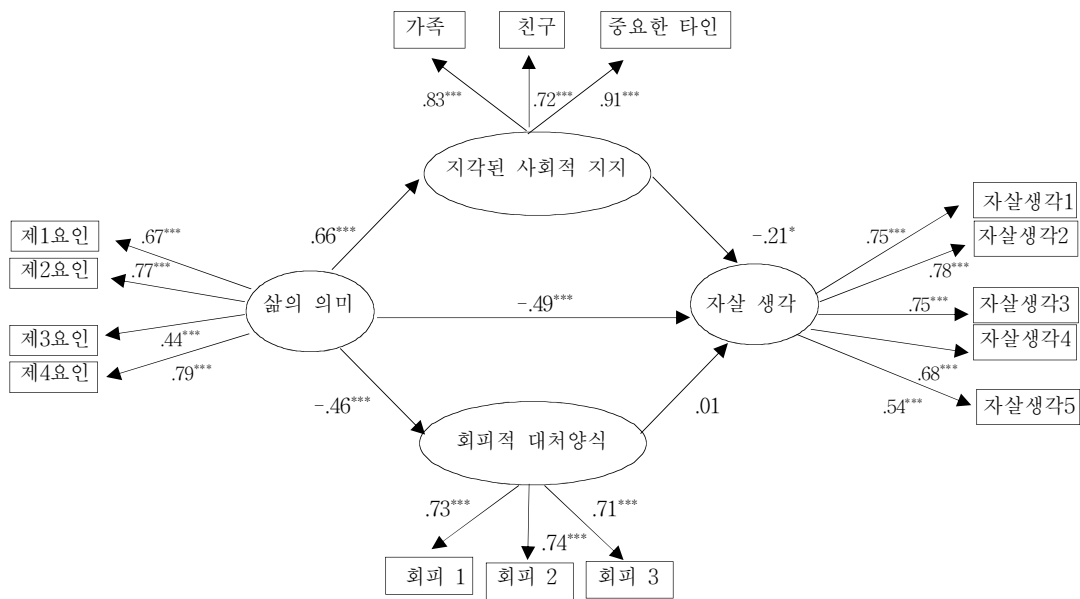
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beta = -.33, p < .001$)와 회피적 대처양식($\beta = .29, p < .001$)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회피적 대처양식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노인의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9, p < .001$.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지각된 사회적 지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01$.

그림 1. 남자의 부분매개 모형과 경로 계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01$.

그림 2. 여자의 부분매개 모형과 경로 계수

지($\beta = .66, p < .001$)와 회피적 대처양식($\beta = -.46,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며, 회피적 대처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beta = -.21, p < .05$)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회피적 대처양식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1, ns$.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지만, 회피적 대처양식의 사용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자노인들의 경우,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만이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양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노인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은 남녀노인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을 연구한 임소선(2006)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자살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도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도 남녀노인 모두에게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Karalin, 1997; 장혜경, 2007에서 재인용)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된 사회적 수준이 낮았다고 한다. 또한 친구, 이웃, 가족과의 통합 등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노인자살의 위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김동휘, 2007; 박순천, 2005; 배지연, 2005; 이민숙, 2005)도 있었다. 또한 삶의 의미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는 남녀노인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김완수, 2005) 그리고 청소년 및 중년의 삶의 의미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허지연, 2007)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전 연령층에서 삶의 의미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남녀노인 모두 회피적 대처양식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대처양식과 자살 간의 관련성의 크기가 감소하며(Melanie & Ronald, 2003),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Josepho & Plutchik, 1994; Orbach, Bar-Joseph, & Dror, 1990; Melanie & Ronald, 2003)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 삶의 의미가 낮은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

의 삶의 의미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인 대처, 적응, 웰빙(well-being)을 촉진시키는데 반해, 낮은 수준의 삶의 의미는 심리적 고통, 의심, 불확실성과 연관되어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Emmons, 1999; Krause, 1998; 심미성, 2006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남녀노인의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비매개과 모형, 완전매개 모형, 부분매개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남녀노인 모두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남녀노인의 삶의 의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회피적 대처양식, 자살생각의 경로를 최종모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녀노인 모두 삶의 의미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현진(1990)의 연구에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결여된 사람은 실존적 좌절에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며, 따라서 자살생각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고 하였다.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Bonner & Rich, 1990; Linehan, Goodstein, Nielsen, & Chiles, 198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삶의 의미의 저하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삶의 의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녀노인의 삶의 의미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회피적 대처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확고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긍정적 해석으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Skagg & Barron, 2006). 또한 삶의 의미는 스트레스나 역경,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방식의 촉진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Park & Folkman, 1997), 삶의 의미 자체가 개인이 겪는 힘든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상황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들은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녀 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남녀노인 모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인간관계 영역이었으며(Burbank, 1988), 스트레스나 우울, 상실을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 체계가 충분히 유지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면, 자살발생률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Deleo & Ormskerk, 1991; 장

혜경, 2007에서 재인용)와 일치되는 결과였다. 이에 반해 회피적 대처양식의 경우 노인의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자노인의 경우, 회피적 대처양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피적 대처양식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회피적 대처양식도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과 달리 회피적 대처양식의 사용이 자살생각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만이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여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과 사회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건강한 대처양식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왔으며(Stillion & Mcdowell, 1996), 따라서 남자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대처자원이 부족한 여자에게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처양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Wilson, 1981)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 대처양식이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의 자살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의 경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따라서 남자에 비해 관계 내에서 좀 더 보호받고 의존하면서 자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남자는 스트레스나 갈등에 대해 경직

되고 완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과국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버리려는 경향이 높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는 기존 이론과 일맥상통하였다. 은퇴로 인한 지위의 변화와 갈등, 신체적 질환,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남자노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으나, 여자에 비해 이와 같은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고립감과 무망감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 한 개인이 적응적인 대처 양식을 찾지 못한다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함에 따라 더욱 더 불안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압박감을 높이고, 자살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을 삶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rikson (1982)은 노년기의 안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난 날 자신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지내 온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에서 재인용). 또한 높은 삶의 의미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본 연구를 통해서도 노년기에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타인이나 사회로부

터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스트레스나 역경,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자살생각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함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한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찾아오는 노인들만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가 노인들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노인들의 객관적인 인지기능, 건강 상태, 우울 수준에 대해 설문단계에서 고려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이라는 주제 자체가 노인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연구대상 노인들의 진실한 속마음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해 왜곡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의 자살생각 및 자살관련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의 것을 번안한 것이어서 한국 노인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해 언급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이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의미 수준을 파악하고, 이것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을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사이를 매개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첫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삶의 의미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미, 류승미,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동휘 (2007).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완수 (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 (2001).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10(1), 55-74.
- 김형수 (2002). 한국 노인의 자살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김혜영 (2005).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천 (2005).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 (2005).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숙정 (2007). 노인의 삶의 의미와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경 (1990).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회, 7(1), 39-60.
- 심미성 (2006). 스트레스 완충자원으로서 삶의 의미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미 (200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211-225.
-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희 (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숙 (2005).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지, 신경일, 김숙남, 최순옥 (2002). 일부지역 성인의 생의 의미. *성인간호학회지*, 14(3), 359-367.
- 임소선 (2006).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2007). 노인의 자살생각 유발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연구. 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진 (1990). 우울, 자기비하, 및 삶의 의미가 자살관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심,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951-967.
-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지, 정유진 (2003).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3(3), 414-424.
- 통계청 (2006). 사망원인 통계연보. <http://www.kosis.kr>에서 2008, 4, 1 인출.
- 허지연 (2007).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Baum, S. (1981).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2(4-B), 1580.
- Berman, A. L. (1978). *Sex roles and attribution of suicidality*.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meeti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New Orleans.
- Bonner, R. L., & Rich, A. R. (1990). Psychological vulnerability, life stress, and suicide ideation in jail population: A cross-validation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3), 213-224.
- Botis, A., Soldators, C. R., Lioffi, A., Kokkevi, A., & Stefanis, C. N. (1994). Suicide and violence risk: Relationship to coping styles. *Acta-Psychiatrica-Scandinavica*, 89, 92-96.
- Burbank, P. M. (1988). *Meaning in life among older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MA.
- Burbank, P. M. (1992). An explorative study: assessin the meaning in the life among older clien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8(9), 19-28.
- Canetto, S. S., & Sakinofsky, I. (1998). The gender paradox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1-23.
- Crumbaugh, J. C., & Maholic, L. J. (1981). An

-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ngenet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74-81.
- DeMan, A. F. (1998).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Personal variables, stress, social support. In A. A. Leenaars, S. Wenckstern, I. Sakinofsky, R. F. Dyck, M. J. Kral, & R. C. Bland(Eds.), *Suicide in Canada(pp.151-161)*.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D'Zurilla, T. J., Chang, E. C., Nottingham, E. J., & Faccini, L. (1998).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nd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e risk in college students an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1091-1107.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4).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coping: Task, emo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50-60.
- Findlay, C. (1981). Life satisfaction and purpose in life during late adulthood.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2(10-B), 4222.
- Frankl, V. E. (1963). *Me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Frankl, V. E. (1969).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American Library.
- Frankl, V. E. (1975). *The unconscious god*. Jung, T. H. translation (1979). St. Paul.
- Harlow, Newcomb, & Bentler. (1986). *Suicide Ideation Scale*.
-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955.
- Josepho, S. A., & Plutchik, R. (1994). Stress, coping and suicide risk in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4(1), 48.
- Kaplan, A. G., & Klein, R. B. (1989). *Women and suicide*. In D. J. Jacobs (Ed.), *Suicide: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linger, E. (1977). *Meaning and void: Inner experience and the incentives in people's liv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3), 456-469.
- Kwan, Y. H. (1994). A Revisit of Elderly Suicide in Hong Kong.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7(1), 115-126.
- Leslie, R. C. (1982). Counseling the aged. *International Forum for logotherapy*, 5, 47-52.
-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 Chiles, J. 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76-286.
- Maris, R. W., Berman, A. L., & Silverman, M. M.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THE GUIDEFORD PRESS, NEW YORK LONDON.
- McAdams, D. P., Diamond, A., de St. Aubin, E., & Mansfield, E. (1997). Stories of Commitment: The Psychosocial Construction of Generative L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78-694.

- McIntire, M., & Angel, C. (1981). The Taxonomy of suicide and self-poisoning. In Wells, C. & Stuart, J. (Eds.), *Self-destruct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Melanie J. E., & Ronald R. H. (2003). Coping,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manifestation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10), 1133-1150.
- Orbach, I., Bar-Joseph, H., & Dror, N. (1990). Styles of problem solving in suicidal individual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0(1), 56.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30, 115-144.
- Parquart, M. (2002). Creating and Maintaining Purpose in Life in Old Age: A Meta analysis. *Aging International*, 27(2), 90-114.
- Peterson, E. (1985). The physical.. the spiritual... Can you meet all of your patient's need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1(10), 23-27.
- Reker, G. T. (1997). Personal meaning, optimism, and choice: Existential predictors of depression in community and institutional elderly. *The Gerontologist*, 37, 709-716.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human quest for meaning*. Mahwah, NJ: Erlbaaam.
- Skaggs, B. G., & Barron, C. R. (2006). Searching for meaning in negative events: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 559-570.
- Stenback, A. (1980).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 in old age. In Birren, J. E. & Sloane, R. B. (Eds.), *Handbook of Mental Health Aging*,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 Stillion, J. M., & McDowell, E. E. (1996). *Suicide across the life span: Premature exits (2nd ed.)*.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Sudak, H. S., Ford, A. B., & Rushford, N. B. (1984). Adolescent suicide: An overview. *American of Psychotherapy*, 38, 350-363.
- White, H., & Stillion, J. M. (1988). Sex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suicide.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Wilson, M. (1981). Suicidal behavior: Toward an explanation of differences in female and male rate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11, 131-140.
- Wrosch, C., Schulz, R., & Heckhausen, J. (2004). Health str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the elderly: A control-process approach.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13, 17-20.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원고접수일 : 2011. 11. 8.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12. 20.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 19.

게재결정일 : 2012. 2. 20.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Kim, Hyun-Ji

Kwon, Jung-Hye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240 elderly aged 60 and over ($M=71.2$, $SD=7.28$). For this study, Elderly Meaning in Life (EMIL) Scale, Suicide Ideation Scale (SI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Scale (ACS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suicide ide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eaning of lif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hil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voidance coping style in both males and females. Second, the partial mediation mod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showed better fit indices than alternative models in both of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paths of the partial mediation model, meaning of life in males was a significant variable that explained suicide ideation. Moreove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In females, meaning of life was a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suicide ideation. However, only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significant variables that explained suicide ideation among older males and females aged 60 and over were revealed and thus might be useful as basic data for the prevention and counsel of older suicidal adults.

Key words : meaning of life, suicide idea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tyle